

News

또 금리 인상 시사한 한은 "내년 원화 정도 적절히 조정"

서울경제

한국은행,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통화정책의 원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 발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

아직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아… 다만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 "내년 1분기 인상 배제 필요없다" 언급… 1.25%까지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

전세대출, 내년에도 한도초과시 총량규제 제외… "중단 없다"

뉴스1

금융당국, 전세대출에 대해 내년에도 수요 몰려 중단 위기 시 올해 4분기처럼 총량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단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 발표
대출 중단에 대한 우려는 한시름 덜어놓아… 1월부터 다시 규제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

4대 은행 충당금 '안전 불감증'…금융위기 대비 '반토막'

데일리안

국내 4대 은행, 대출 부실 대비 충당금이 최근 1년 동안 2,000억 원 넘게 증가… 5조원대 붕괴 임박…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는 지적 제기

하나은행 전년동기대비 3.0%, 우리은행 11.5%, 신한은행 5.5% 감소… 국민은행만 2.9% 증가… 지금은 기계적 리스크 관리 대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금감원, 우리금융 지배구조 손볼까…종합검사서 점검

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에서 지배구조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2차 종합검사 실시… 추가 검토 필요시 검사기간 연장 가능성
과점주주 체제 도입 전과 비교해 거버넌스 안정화 이뤘는지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 다만 친시장적 행보로 사전적 감독 강화 차원에서 헤아려보는 수준이 될 것

건강하면 할인…보험사 건강체 할인 특약·상품 봇물

한국금융신문

보험사들, 잇단 건강체 할인 특약, 상품 출시…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 얻는 중
미래 보험먹거리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 보험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어 신사업 모색이 필수적

매각 논의 시작? … 동양생명, '임시주총'에 쏠리는 눈'

머니S

동양생명, 23일 기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2022년 1월 6일… 시노펙 보유 다자보험 지분 98.78% 매각 추진한다고 밝히며 매각설에 훨씬 더…
또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전량 매각으로 한층 탄력받기도… 다만 사측은 최대주주의 해외자산 분석 및 평가 진행 중이나 임시주주총회 개최 건은 매각이 아니라고 언급

중소형 증권사도 '마이데이터'…현대차증권 사업 본허가 취득

디지털타임스

현대차증권,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증권사 중 일곱 번째
고객이 주체적으로 투자 및 은퇴관리 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현에 집중… 내년 초 마이데이터 전용 앱 런칭 예정

중소형증권사 스팩합병 시장 존재감…유안타·유진투자증권 '도약'

시사저널이코노미

중소형 증권사들, 스팩합병을 통해 IPO 시장에서의 부진 만회… 특히 유안타와 유진, 각각 2건의 스팩합병 상장 성사로 IPO 역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그간 대형증권사들이 IPO 일감 싹쓸이하며 중소형사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 스팩발기인 중에서는 ACPC가 15건 중 3건 성공으로 부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